

양친, 한부,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과 가족환경특성 비교

A Comparison of Adjustment and Family Environment of Adolescents from Different Family Structures

이 미 리(Meery Lee)¹, 박 주 희(Ju Hee Park)^{2*}, 정 현 숙(Hyunsook Chung)^{3**}

¹Department of Youth Guidance and Sport Educ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³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adjustment and family environments of adolescents from three different family structures, using the KCYPS panel 4th wave data from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consisted of 1,715 adolescents in two-parent families, 79 adolescents in single-father families, and 113 adolescents in single-mother familie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COVA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adolescents in two-parent families showed a lower level of physical symptoms than those in single-mother families and a lower level of participation in classwork than those in single-father families whereas adolescents in single-father families we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delinquency than those from the other two family structures.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family environments including parents' physic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family economic status,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s' absence at home after school. Parents in single-mother and single-father families were less healthy physically, showed low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reported less income, and spent less money for their children, compared to those in two-parent families. With regard to parenting behaviors, single fathers tended to be less warm toward and neglected their children more than single mothers and parents in two-parent families. Adolescents in single-father families were most likely to be left alone at home after school, followed by those in single-mother and two-parent famili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specific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adolescents from single-father families in order to support their adjustment.

▲주제어(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가족구조(family structure), 양친가족(two-parent family), 한부가족(single-father family), 한모가족(single-mother family), 적응(adjustment), 가족환경(family environment)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족구조는 가족관계의 역동성과 가족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가족구조 그

자체보다 특정한 가족구조가 공유하는 환경적 특성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A. Barret & R. Turner, 2005; J. Hoffmann, 2006). 마찬가지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 내의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 Corresponding Author : Park, Ju Hee,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147, E-mail: juheepark@yonsei.ac.kr

** Corresponding Author : Chung, HyunSook,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un 2 Gil, Jongro-gu, Seoul 110-743, Korea, Tel: 92-2-2287-5215, E-mail: hschung@smu.ac.kr

자녀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가족구조 자체가 청소년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의 구조적 결핍은 경제적 어려움, 양육자의 적응이나 건강상의 어려움, 역할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야기하고(E. Hwang, 2007; E. Hyun, 2008; Y. Kim, 2014), 사회적 지원망의 부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M. Kim, H. Lee, & T. Choi, 2012; W. Kim & J. Jeon, 2010; Y. Nam, 2010; W. Yun, 2011) 가족구성원들은 적응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인다(Y. Kim, 2014; H. Nam, H. Yoon, T. Lee, C. Shin & D. Lee, 2013; W. Yun, 2011).

특히 발달단계상 급격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데, 이는 청소년기에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어려운 가족환경에 처하게 될 경우 개인적 발달과업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가족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H. Nam et al., 2013). 특히, 한부가족의 경우에는 양육 부담으로 인해, 한모가족은 빈곤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청소년 자녀들이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 Hwang, 2007). 그러나 한부가족과 한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양친가족 자녀들과 발달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나 때로는 심리적으로 더 성숙하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W. Kim & J. Jeon, 2010; M. Kim et al., 2012; Y. Nam, 2010).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긍정적 양육과 또래, 교사 및 지역사회 지지의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가족구조 내에서의 경험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가족구조의 다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적응과 이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가족환경특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를 개발하는 과정에 선행되어야 할 주요 연구과제 중 하나는 가족구조에 따라 가족 환경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시대나 문화별로 가족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수용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 내의 각 가족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적응을 문제행동이 적고, 학교생활에 잘 참여하며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

며, 신체적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들이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학교적응, 신체적·심리적 안녕 등 적응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주요 가족환경특성을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의 경제적 자원,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안녕, 보호자 감독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가족환경특성이 가족구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족구조를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사회정서적 행동문제, 학교생활적응, 비행, 신체적·심리적 안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가족 환경(부모의 신체적·심리적 안녕, 가족의 경제적 특성, 부모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부재 일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구조와 청소년의 적응

청소년의 적응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과 상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심리적 구인으로서 외현적·내재적 문제행동, 비행, 학교적응, 사회적 유능성, 심리적 안녕 등의 측정치를 포함한다(S. Cavanagh, 2008; K. Guion, S. Mrug, & M. Windle, 2009; M. Kerr, H. Stattin, & M. Ozdemir, 2012; A. Vazsonyi, A. Ksinar, J. Mikuska, & G. Jiskrova, 2015). 선행연구자들의 정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응을 '문제행동이 적고, 학교생활에 잘 참여하며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를 기초로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하였다.

한부모가족은 양친가족과 달리 한 부모의 부재로 인해 남은 부모와 자녀들이 역할과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쉽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은 양친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 뿐 아니라 공격성,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가정이었다 (M. Averdijk, T. Malti, M. Eisner, & D. Ribeaud, 2012; V. Hemovich, A. Lac, & W. Crano, 2011). 실제로 양친가족과 한부모가족을 비교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 결과(P. Amato, 2005; S. Brown, 2004; J. Hoffmann, 2006; B. Jablonska & L. Lindberg, 2007; S. Oh, 2001; C. Patten et al., 1997), 대체로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양친가족의 청소년들보다 더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나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공격성(A. Cho & Y. Lim, 2009), 과잉행동(K. Mokruue, Y. Chen, & M. Elias, 2012) 등의 문제행동을 비롯한 청소년의 적응은 가족구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몇몇 연구자들(T. Bjarnason et al., 2003; V. Hemovich et al., 2011; B. Jablonska & L. Lindberg, 2007; F. Naevdal & F. Thuen, 2004; S. Oh, 2001)이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한부가족과 한모가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부가족 청소년이 한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흡연, 음주, 약물사용 등의 비행행동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모가족보다 한부가족의 청소년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자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며 여가활동에 대한 통제를 덜 하는 것에 기인할 수 있고(S. Demuth & S. Brown, 2004), 아버지들이 음주와 흡연 등 비행과 관련된 행동의 모델을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일 수 있다(S. Brown & L. Rinelli, 2004).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두 가족유형 간의 차이는 한부가족과 한모가족을 단순히 한부모가족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B. Jablonska & L. Lindberg, 2007).

한편, 네 유형의 가족구조(양친, 한부, 한모, 양친부재가족)에 속한 청소년들의 우울증상을 비교한 C. Patten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양친가족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였으나,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보다는 부모의 지지적인 태도와 청소년의 성별이 우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가족구조 그 자체에 의한 차이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원으로 기능하는지의 여부와 청소년의 성이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들도 가족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은 학업성취 (P. Fomby & A. Cherlin, 2007; A. Hatos, & S. Baltatescu, 2013; K. Magnuson & L. Berger, 2009), 성취동기(Y. Yeom, S. Choo & S. Lim, 2007), 고등학교 졸업률(S. Pong & D. Ju, 2000), 교육에 대한 열망(R. Garg, S. Melanson, & E. Levin, 2007) 등 학교적응의 다양한 측면에서 양친가족 청소년보다 낮은 적응수준을 보였다. 특히 일부 연구(E. Sterrett, D. Jones, & C. Kincaid, 2009)에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투자를 통제할 경우,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발달적 특성이 유의하게 감소하거나 더 이상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경제적 자원이 양친가족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며, 한부모가족 부모들은 양친가족에 비해 다른 부모나 학교 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자녀를 위한 사회적 자원투자를 덜 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한부모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가사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그 결과로 학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양친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더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거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였을 가능성도 추측해볼 수 있다(S. Oh, 2001). 그러나 양친가족과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M. Jeung, 2011; Y. Nam, 2010)도 보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찍부터 독립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양친가족의 자녀에 비해 학업성취에 대한 갈망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K. Lee & J. Lee, 2008)도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 환경 내에서 또래나 교사 등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B. Jablonska & L. Lindberg, 2007; S. Oh, 2001)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양친가족의 자녀들보다 또래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모가족 청소년들이 한부가족이나 다른 가족구조 내의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친구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한부가족의 청소년들은 양친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괴롭힘이나 신체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M. Bramlett & S. Blumberg, 2007; C. Langton & L. Berger, 2011) 양친가족에 비해 한부모가

족 청소년들이 신체적 건강상태가 덜 양호하여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은 적은 가구 수입과 부모의 감독 부족 때문에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고,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W. Troxel, L. Lee, M. Hall, and K. Matthews(2014)는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면문제에 있어서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양친가족에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수면 효율성이 낮고, 취침시간이 불규칙하였으며, 주말의 수면 지속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W. Troxel et al.(2014)은 이러한 차이가 한부모가족의 불규칙적인 가족 일과나 부모 감독 부족 등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수면문제를 야기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의 중요 지표라 할 수 있는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양친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행복감을 덜 느끼고 자신의 삶에 덜 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R. Gray, A. Chamrathirong, U. Pattaravanich, & P. Prasartkul, 2013; Y. Kwan, 2008). 특히, Y. Kwan(2008)의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부재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은 양친가족의 청소년과 유사한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한부모가족과 양친부재가족의 청소년들은 양친가족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을 느낄 위험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한부모의 부재가 청소년의 심각한 적응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선행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O. Kim(2004)의 연구결과, 자존감과 문제해결 대처능력 등에서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중간 이상의 적응 수준을 보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K. Lee and J. Lee(2008)의 연구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양친가족의 자녀와 유사한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적응에 필요한 개인적인 자원과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 혹은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는 몇몇 선행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양친가족의 자녀보다 낮았고(A. Cho & Y. Lim, 2009) 자살생각도 더 많이 하는 경

향이 있었으나(R. Ang & P. Ooi, 2004),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K. Mokruet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여자 청소년이 양친가족의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과잉 행동을 보였으나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구조에 따라 행동문제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조와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결과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형제유무나 관계의 질(S. Ju & K. Lee, 2005; B. Son, 2012), 전학경험(W. Lee, H. Chu & N. Yoo, 2014)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어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 차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성, 형제유무, 전학경험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켰다.

2.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환경특성

가족구조는 청소년의 적응뿐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 사회를 비롯한 청소년의 주요 생활환경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조에 따른 환경 특성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J. Hoffmann, 2006; B. Jablonska & L. Lindberg, 2007; B. Kang, E. Kim & C. Nho, 2012; H. Kim, & S. Lee, 2011; Y. Nam, 2010)이 가족구조에 따른 환경적 특성보다는 청소년의 적응 특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가족구조 내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가족 환경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가족구조와 청소년의 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구조에 따라 가족환경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자들에 따르면 가족구조 그 자체의 차이보다는 구조의 차이와 관련된 양육행동의 질, 의사소통과 감독의 부재, 부모의 정신적·신체적 어려움, 사회경제적 자원의 제공 등과 같은 가족환경에서의 차이가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A. Barrett & R. Turner, 2005; A. Gil, W. Vega, & F. Biafora, 1998; B. Jablonska & L. Lindberg, 2007). 먼저, 몇몇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 행동을 포함한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이 가족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J. Kim & S. Yang, 2013; S. Oh, 2001; K. Zeiders et al., 2011). K. Zeiders et al.(2011)은 멕시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양친가족과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는

데, 연구결과 한모가족의 어머니는 양친가족에 비해 우울 증상, 가족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부모-자녀 간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감독과 부모-자녀관계의 질에서 두 가족구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라틴문화에서 강조되는 집단주의와 확대가족과의 강력한 유대는 한모가족으로 하여금 주위로부터 자녀양육, 정서적지지, 자녀감독 등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자원을 얻게 해주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 흥미롭게도 라틴문화처럼 확대가족의 영향과 집단주의가 강조되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K. Lee and Y. You(2006)의 연구에서도 K. Zeiders et al.(201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네 개 영역에서 한모가족의 가족기능은 양친가족과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한모가족이라는 환경이 역기능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또 다른 국내연구(S. Oh, 2001)에서는 양친가족 부모들이 한부가족이나 한모가족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지원과 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문화적 차이와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을 고려한 추후 연구를 통해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국내외 선행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적응과 마찬가지로 한부가족과 한모가족은 부모-자녀관계나 가족기능 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J. Kim and S. Yang(2013)은 한부가족과 한모가족의 자녀양육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감독, 규칙설정, 관여, 친밀감, 의사소통, 친구관계 및 소재 파악, 학부모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모가족 한부에 비해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자료분석 결과 한모가족이 한부가족에 비해 부모-자녀 간에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가족기능, 양육행동 이외에 가족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가족환경 특성 중의 하나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다(A. Barrett & R. Turner, 2005). 국내외 연구자들(J. Hemovich et al., 2011; O. Kim, 2004; S. Oh, 2001)은 한부모가족, 특히 한모가족의 경우 양친가족에 비해 가족수입이 적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낮은 사회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한모가족은 가족의 총수입이 적어 양친가족에 비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가족구조에 따른 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청소년의 학

습환경이나 지역사회 특성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S. Hwang, H. Seo and J. Kim (2010)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부모들은 학원이나 학습지 등 과외활동을 통해 자녀의 학습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경제적 인 제한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못하였다. 특히, 한모가족의 경우 어머니 혼자 가족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기 쉽고, 그 결과 열악한 환경의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J. Hoffmann, 2006).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 패널의 4차년도(현 고1) 참여자들이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 수준과 그들의 가족환경특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패널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1차년도 당시의 가족구조와 4차년도 현재의 가족구조가 동일한 사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사례 중에서 다문화가족과 재혼부모가족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중1패널 4차년도 연구대상 2,351명 중에서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총 1,907명이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무응답자를 제외하면 각각 49%와 48%로 거의 같았다. 이들의 가족 구성은 양친가족 90%, 한부가족 4%, 한모가족 6%로 양친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92%이었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절반이상인 62%가 일반고, 18%가 특성화고, 17%가 자율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1학년에 재학중이며 이들 중 1%에 해당하는 27명이 지난 1년간 전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47%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며, 39%가 고졸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51%가 고졸이며 40%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된 변인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 패널 4차년도 질문지에 제시된 척도나 문항들로 측정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907)

Variable	Frequency and Percentage	Two-Parents Family (n=1,715)		Single-Father Family (n=79)		Single-Mother Family (n=113)					
		f	%	f	%	f	%				
Gender	Male	843	49.2	46	58.2	54	47.8				
	Female	829	48.3	33	41.8	56	49.5				
	No response	43	2.5	0	0.0	3	2.7				
Sibling	One or more	1593	92.9	66	83.5	95	84.1				
	None	122	7.1	13	16.5	18	15.9				
Type of school	General high school	1090	63.6	37	46.8	58	51.3				
	Autonomous high school	225	13.1	7	8.9	11	9.7				
	Special purpose high school	67	3.9	4	5.0	6	5.4				
	Specialized high school	275	16.0	28	35.4	33	29.2				
	Miscellaneous schools	1	0.1	1	1.3	0	0.0				
	No response	57	3.3	2	2.5	5	4.4				
Experience of changing schools during the last one year	Yes	25	1.5	2	2.5	0	0.0				
	No	1647	96.0	77	97.5	110	97.3				
	No response	43	2.5	0	0.0	3	2.7				
Parents'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Father	f	%	f	%	f	%	f	%	
		49	2.9	47	2.7	14	17.7	-	-	10	8.8
	High school graduation	695	40.5	900	52.5	46	58.2	-	-	75	66.4
		College/university graduation	885	51.6	737	42.9	7	20.3	-	-	27
	Graduate school graduation	85	5.0	29	1.7	9	1.3	-	-	0	0.0
	No response	1	0.1	2	0.1	1	2.5	-	-	1	0.9

되었으며(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적응 변인들

청소년 적응 변인은 사회정서적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비행, 신체적 건강,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다. 각 변인의 측정 척도나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정서적 행동문제

연구대상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행동문제는 B. Cho and K. Li(2003), S. Kim and K. Kim(1998)의 연구를 참조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4에서 구성된 문항이었으며, 측정된 행동문제에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이 포함되었다. KCYPS 중1패널 4차(고1 대상) 질문지에서 정서문제를 측정하는 36개 문항에 대해서 구인타당도 분석을 실행하여 각 문항들이 소속된 요인에 부하되지 않고 별도의 요인을 구성하는 부적합한 문항 4개를 삭제하였다. 삭제 후 총 32개 문항에 대해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의집중의 어려움,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75, 공격성 .78, 신체증상 .84, 사회적 위축 .88, 우울 요인 .88로 산출되었다. 각 문항은 4점 평정척도이며 평정치는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서 제시하는 행동문제가 적음을 의미한다.

(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B. Min(1991)의 학교생활적응척도의 일부로 구성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4의 척도로 측정되었고, 학습참여, 학교규칙준수, 교우에 대한 친밀감, 교사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성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학교생활적응 척도 총 20개 문항 중 1개 문항은 모든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낮아 삭제하였다. 삭제 후 19개 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총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을 학습참여, 학교규칙준수, 교우에 대한 친밀감, 교사에 대한 친밀감으로 명명하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산출한 Cronbach's α 는 학습참여가 .75, 학교규칙준수가 .76, 교우에 대한 친밀감이 .70, 교사에 대한 친밀감이 .81이었다. 각 문항은 4점 평정척도로 평정치는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서 제시하는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제2외국어 등 총 9개 과목에 대해 과목별로 주관적 평가를 5점 평정척도로 답하는 9개 문항의 평균치로 산출되었다. 평정치는 '1.매우 잘했다 ~ 5.매우 못했다'이다.

(3) 비행

비행은 2010년부터 수집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된 연간 비행경험빈도, 연간 사이버비행경험빈도, 연간 비행피해경험빈도로 측정되었다. 연간비행경험빈도는 14개의 비행경험(흡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타인을 놀리기, 왕따시키기, 패싸움, 때리기,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빼기,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 혹은 성희롱, 도박) 유무의 합산으로 산출하였다. 연간사이버비행경험빈도는 6개의 사이버 비행경험(채팅/게시판에 거짓정보 올리기, 불법다운, 타인의 아이디나 주민번호사용, 채팅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해킹, 채팅/게시판에서 폭력적 언어 사용) 유무의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연간비행피해경험빈도는 연간비행피해경험유무를 측정하기 위한 7개의 비행피해경험(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왕따당하기, 심하게 맞기,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빼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하기, 심한 욕설 듣기) 유무의 합산으로 산출되었다.

(4) 신체적·심리적 안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4에서는 신체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 신체적 건강상태를 묻는 한 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들로 하여금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4점 평정 척도(1.매우 건강하다 ~ 4.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로 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S, Y. Kim et al., 2006). 삶의 만족도 척도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을 통해 요인 분석한 결과 1개 요인에 부하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81로 산출되었다. 4점 평정척도로 평정치는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2) 가족환경특성 변인들

가족환경특성 변인은 부모의 신체적 건강, 삶의 만족도, 가족의 경제적 특성, 부모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부재일수로 측정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안녕

부모의 신체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동년배와 비교해 볼 때 귀하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지시문에 4점 평정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는 1개 문항으로 평

정치는 '1.매우 건강하다 ~ 4.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안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삶의 만족도를 묻는 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귀하는 현재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이며 4점 평정척도로 평정치는 '1.매우 만족한다 ~ 4.매우 만족하지 못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2) 가족의 경제적 특성

가족의 경제적 특성은 가구 연소득, 월평균 자녀 용돈, 월평균 자녀 방과후 교육비로 측정되었다. 측정 단위는 만원이다.

(3) 부모양육방식

부모양육방식은 M. Huh(2000)와 S. Kim(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4에서 구성한 총 29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전체 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 총 5개 요인이 추출되어 각 요인을 감독, 애정 및 합리적 설명, 과보호 및 비일관성, 방임, 학대로 명명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감독 .77, 애정 및 합리적 설명 .85, 과보호 및 비일관성 .85, 방임 .72, 학대 .85로 산출되었다. 4점 평정척도이며 평정치는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서 제시하는 양육방식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4) 방과후 보호자 부재 일수

“방과후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는 일주일에 며칠입니까?”의 질문에 '1. 거의없다', '2. 1~2일 정도', '3. 3~4일 정도', '4. 거의 매일' 중에서 택일하도록 되어 있다.

3) 통제변인

가족유형별 청소년의 적응과 환경특성 비교 분석에 있어서 청소년의 성별, 형제유무, 전학경험을 통제하였다. 형제유무는 부모대상 질문지에서 “이 학생은 형제자매가 있습니까?”의 지시문에 ‘있다’ 혹은 ‘없다’로 답하며, 전학경험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전학한 적이 있습니까?”의 지시문에 ‘있다’ 혹은 ‘없다’로 답하게 되어 있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측정도구의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adolescents' adjustment and results from ANCOVAs (covariates: gender, having siblings, experiences of school change)

Variables	Family structure	Two- parents family (<i>n</i> =1,715)	Single- father family (<i>n</i> =79)	Single- mother family (<i>n</i> =113)	<i>F</i>	η^2
		<i>M</i> (<i>SD</i>)	<i>M</i> (<i>SD</i>)	<i>M</i> (<i>SD</i>)		
Social-emotional behavior problems	1. Attention difficulty	16.90 (3.05)	16.25 (2.91)	16.40 (3.17)	3.30*	.00
	2. Aggression	14.95 (2.74)	15.00 (3.11)	14.45 (3.07)	1.90	.00
	3. Somatization	21.43 (3.99) ^a	21.39 (4.18) ^{ab}	20.31 (4.30) ^b	4.06*	.00
	4. Social withdrawal	13.88 (3.43)	13.72 (3.30)	13.30 (3.84)	1.64	.00
	5. Depression	28.14 (5.06)	28.56 (4.81)	27.51 (5.18)	1.05	.00
School adjustment	6. Participation in learning	11.05 (2.42) ^a	11.91 (2.63) ^b	11.24 (2.78) ^{ab}	5.14**	.01
	7. Compliance with school rules	10.30 (2.39)	10.81 (2.82)	10.15 (2.70)	1.66	.00
	8. Peer attachment	7.46 (1.69)	7.45 (1.70)	7.50 (1.67)	.03	.00
	9. Teacher attachment	10.64 (2.90)	11.13 (2.76)	10.29 (2.88)	1.92	.00
	10. Academic achievement	3.07 (.68)	3.40 (.87)	3.22 (.85)	1.69	.01
Delinquency	11. Frequency of delinquency per year	.33 (2.79) ^a	.72 (1.19) ^b	.35 (.81) ^a	8.29***	.01
	12. Frequency of cyber-delinquency per year	.24 (.61)	.32 (.67)	.33 (.69)	1.11	.00
	13. Frequency of victimization per year	.04 (.29)	.04 (.25)	.01 (.10)	.77	.00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14. Physical health	3.25 (.57)	3.28 (.55)	3.12 (.66)	2.73	.00
	15. Life satisfaction	6.47 (1.85)	6.65 (1.83)	6.64 (1.73)	.92	.00

* $p < .05$, ** $p < .01$, *** $p < .001$ ^{a,b,c}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 .05$ according to Bonferroni posthoc tests.

구인타당도는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varimax)을 통해 요인구조를 파악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성별, 형제유무, 지난 1년간 전학경험 유무를 통제변인으로, 가족구조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 특성 차이

청소년의 적응을 측정한 15개 변인에 대해 가족구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성별, 형제자매 유무, 전학경험 유무의 세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를 기술통계치와 효과크기 η^2 값과 함께 <Table 2>에 제시하였다. ANCOVA 결과 정서행동문제 변인들 중에서 주의집중 어려움과 신체증상 수준에 있어서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주의집중 어려움 수준은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어느 두 집단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신체증상은 양친가족과 한모가족 청소년들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양친가족의 청소년들이 한모가족 청소년들에 비해서 신체증상 수준의 평균값이 높았고 이는 평정치를 고려할 때 신체증상 경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characteristics of family environment and results from ANCOVAs (covariates: gender, having siblings, experiences of school change)

Variable	Family structure	Two- parents family (<i>n</i> =1,715)	Single- father family (<i>n</i> =79)	Single- mother family (<i>n</i> =113)	F	η^2
		<i>M</i> (<i>SD</i>)	<i>M</i> (<i>SD</i>)	<i>M</i> (<i>SD</i>)		
Physical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1. Parental physical health	1.80 (.51) ^a	1.92 (.62) ^b	2.05 (.63) ^b	12.88***	.01
	2. Parental life satisfaction	1.95 (.50) ^a	2.25 (.78) ^b	2.39 (.68) ^b	46.51***	.05
	3. Annual household income	5024.80 (2576.93) ^a	2653.25 (1486.75) ^b	1951.05 (1138.15) ^b	103.78***	.10
Family economy	4. Monthly children's allowances	5.23 (3.71) ^a	5.96 (4.39) ^a	4.34 (4.04) ^b	4.06*	.00
	5. Monthly costs for child's after school education	42.02 (24.60) ^a	25.00 (16.05) ^b	27.20 (14.23) ^b	15.55***	.03
Parenting behavior	6. Overprotection and consistency	29.87 (5.55)	29.27 (5.37)	30.10 (5.49)	.30	.00
	7. Reasonable explanation and affection	14.65 (3.54) ^a	16.01 (3.14) ^b	14.46 (3.70) ^a	6.15**	.01
	8. Monitoring	5.68 (1.71) ^a	6.20 (2.31) ^b	5.70 (1.56) ^{ab}	3.77*	.00
	9. Abuse	13.34 (2.45)	12.81 (2.50)	13.22 (2.66)	1.50	.00
	10. Neglect	7.65 (2.00) ^a	8.52 (2.01) ^b	7.77 (2.12) ^a	7.56**	.01
	11. Number of days in which adolescents stay at home after school without parents	1.54 (.93) ^a	2.20 (1.31) ^b	1.83 (1.11) ^c	1.41***	.02

* $p < .05$, ** $p < .01$, *** $p < .001$

^{a,b,c}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 .05$ according to Bonferroni posthoc tests.

학교생활적응 변인들 중에서는 학습참여 수준에 있어서 가족구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참조).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양친가족과 한부가족 청소년의 학습참여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양친가족 청소년의 학습참여 수준 평균이 한부가족 청소년에 비해 낮았으며 평정치를 고려할 때 양친가족 청소년들의 학습참여 수준이 한부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연간 비행경험 빈도에 있어서도 가족구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한부가족 청소년의 비행빈도가 양친가족이나 한모가족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2.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가족환경 특성 차이

가족환경 특성을 측정된 11개 변인에 대해 가족구조를 독립변인, 성별, 형제자매 유무, 전학경험 유무의 세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를 기술통계치와 η^2 값을 함께 <Table 3>에 제시하였다. 11개의 가족환경 특성 변인들 중에서 부모양육방식의

일부 변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족환경 특성 변인에 있어서 가족구조 간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신체적 건강은 양친가족의 부모가 한부 혹은 한모 가족의 부모들보다 건강하다고 인지하였다. 부모의 삶의 만족도도 양친가족의 부모가 한부 혹은 한모가족의 부모들보다 높았다. 가족의 경제적 환경도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양친가족의 가구 연소득이 한부, 한모가족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았다. 월평균 자녀 용돈은 양친가족과 한부가족의 경우 한 달에 평균 5만원 이상으로 5만원이 되지 않는 한모가족에 비해 많았다. 월평균 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출은 양친가족이 한부와 한모가족에 비해 많았다.

부모양육방식은 5개 하위차원 중에서 합리적 설명 및 애정, 감독, 방임 수준에 있어서 가족구조 간 차이를 보였다. 평정치를 고려할 때 합리적 설명 및 애정 수준은 양친가족과 한모가족이 한부가족에 비해서 더 높았다. 감독은 양친가족이 한부가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한모가족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부가족과 한모가족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임 수

준은 평정치를 고려할 때 한부가족이 양친과 한모 가족에 비해 높았다. 자녀의 방과후 보호자 부재 일수는 한부가족이 가장 많았고 한모가족, 양친가족 순이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등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과 가족환경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문제행동이 적고, 학교생활에 잘 참여하며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신체적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개념화 하였다. 성별, 형제자매유무, 전학경험여부 등을 통제한 후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 청소년의 적응수준은 가족구조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의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규칙 준수, 교사와 교사에게 대한 친밀감, 성적, 사이버비행 경험, 비행피해 경험, 신체적 건강, 삶의 만족도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신체증상, 학습참여, 비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한모가족 청소년이 양친가족 청소년에 비해서 신체증상이 많았고, 한부가족 청소년이 양친가족 청소년에 비해서 학습참여도가 낮았다. 또한 한부가족 청소년이 양친가족이나 한모가족 청소년에 비해서 비행경험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M. Bramlett & S. Blumberg, 2007; C. Langton & L. Berger, 2011)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양친가족 청소년들보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덜 양호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한부가족 청소년이 한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흡연, 음주, 약물사용 등의 비행행동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연구결과들(T. Bjarnason et al., 2003; V. Hemovich et al., 2011; B. Jablonska & L. Lindberg, 2007; F. Naevdal & F. Thuen, 2004; S. Oh, 2001)과도 일치한다. 이는 한부모가족에서 한부와 한모가족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B. Jablonska and L. Lindberg(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부와 한모가족을 단순히 한부모가족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가족환경에 있어서 한부와 한모의 환경특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더구나 Statistics Korea(2014)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35년에는 2010년에 비해 부부와 자녀 가족 비율은 37%에서 20.3%로 감소하며, 모와 자녀 가족 비율은 차이가 없으나 부와 자녀 가족의 비율은 2%

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결과 한부가족 청소년이 양친가족과 한모가족 청소년에 비해서 학습참여도가 낮고, 비행경험이 많은 점을 볼 때 점차 증가하는 한부가족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양친가족, 한부가족, 한모가족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환경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안녕(신체적 건강, 부모의 삶의 만족도), 가족의 경제적 특성, 부모양육방식 중에서 합리적 설명과 애정, 감독, 방임 수준, 그리고 자녀 방과후 보호자 부재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한부와 한모가족의 부모가 양친가족의 부모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덜 건강했으며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또한 한부가족과 한모가족의 가구 연소득은 양친가족에 비해 적었고 자녀의 방과후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도 적었다. 그러나 자녀의 용돈은 한부가족이 양친가족과 다르지 않았으며 한모가족은 한부가족과 양친가족에 비해 자녀에게 용돈을 더 적게 주고 있었다. 방과후 보호자 부재 일수는 한부가족, 한모가족, 양친가족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 Barrett & R. Turner, 2005; V. Hemovich et al., 2011; O. Kim, 2004; S. Oh, 2001). 한부가족의 경우 청소년의 적응수준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가구 연소득과 자녀의 방과 후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양친가족에 비해 적었으나 용돈은 한부가족이 양친가족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한부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인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있어서도 가족구조 간 차이가 있어 양친가족과 한모가족 부모가 한부가족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애정을 주는 정도가 양친가족 부모가 한부가족 부모보다 더 높았다. 반면, 한모가족은 양친가족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친가족과 한모가족의 부모가 한부가족의 부모에 비해서 자녀에 대한 방임적 행동이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가족의 청소년이 한모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나 부모의 관여 등을 덜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S. Brown & L. Rinelli, 2004; S. Demuth & S. Brown, 2004; J. Kim & S. Yang, 2013).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모가족의 가족기능이 양친가족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청소년들에게 한모가족이라는 환경이 그리 역기능적이지 않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J. Kim & S. Yang, 2013; K. Lee & Y. You, 2006; K. Zeiders et al., 2011).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한모가족의 어머니는 신체적 건강, 삶의 만족도, 가구

의 경제적 상황 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부가족의 아버지보다 더욱 긍정적인 양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 Langton and L. Berger(2011)는 가족구조가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가족구조에 따라 자원에 대한 가족의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자녀의 적응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친가족은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구조적 결핍을 가진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하기에 용이하다. 둘째, 가족구조는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한부모가족 부모는 양친가족에 비해 시간과 노력에 제약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나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가족구조는 가족 스트레스와 부모의 심리적 안녕에서의 차이를 통해 자녀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양친가족과는 달리 가족구조의 불안정성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지원이나 자원은 부족한 반면 부모역할에 더 많은 요구와 책임이 부가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환경의 변화와 청소년 적응의 관련성에 대해 C. Langton and L. Berger가 제시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본 연구 결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방법론적인 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세 유형의 가족구조는 양친가족 1,715명, 한부가족 79명, 한모가족 113명으로 사례수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평균차 분석에서 요구되는 비교집단들의 등분산성 가정 검토를 위해 Levene의 동질성 검증을 하였으며, 학습참여수준, 비행경험빈도, 부모 삶의 만족도, 가족의 경제적 특성, 부모의 감독 수준, 방과후 보호자 부재정도를 포함하는 일부 변인들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아 결과 해석 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자료가 전국 규모의 표집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족유형별 사례의 차이가 실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통제변수의 고려에 있어서 제한점이다. 가족구조의 변화유무, 한부모가족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자녀의 성의 조합, 한부모가족에서 부재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동성의 친척 유무,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주요변인들(H. Chung, 1993; S. Price & P. McKenry, 1988) 2차 자료를 사용하는 한계로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 제시된 현재 우리나라의 양친, 한부, 한모가족 청소년들의 적응과 그들이 경험하는 환경적 특성에 대한 탐색적이거나 포괄적인 정보는 청소년들의 발달 및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안을 개발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후속연구와 연구결과의 실제적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각 가족구조 안에서 청소년의 적응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들과 이들의 관계를 조절 혹은 매개하는 변인들의 효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주요한 환경인 가족의 구조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구조가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의 경제적 자원,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안녕 등 가족 환경의 차이 뿐 아니라 가족의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환경, 또래집단, 지역사회 등의 가족 외 환경의 차이를 가져오며(J. Hoffmann, 2006), 그 결과 청소년의 적응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주요 발달적 맥락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특성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부가족 청소년의 적응이나 가정환경특성이 양친가족이나 한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추후 청소년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부가족 청소년들의 가정환경특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가족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REFERENCES

- Amato, P. R. (2005). The impact of family formation change on the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the next generation. *Future of Children, 15*(2), 75-96.
- Ang, R. P., & Ooi, Y. P. (2004). Impact of gender and parents' marital statu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0*(4), 351-360.
- Averdijk, M., Malti, T., Eisner, M., & Ribeaud, D. (2012). Parental separation and child aggressive and internalizing behavior: An event history calendar analysi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3*(2), 184-200.

- Bjarnason, T., Andersson, B., Choquet, M., Elekes, Z., Morgan, M., & Rapinett, G. (2003). Alcohol culture,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alcohol use: Multilevel modeling of frequency of heavy drinking among 15-16 year old students in 11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64*(2), 200-208.
- Barrett, A. E., & Turner, R. J. (2005). Family structure and mental health: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 and soci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2), 156-169.
- Bramlett, M. D., & Blumberg, S. J. (2007).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physical and mental health. *Health Affairs, 26*(2), 549-558.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and child well-being: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cohabi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351-367.
- Brown, S. L., & Rinelli, L. N. (2010).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smoking and drink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2), 259-273.
- Cavanagh, S. E. (2008). Family structure history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9*(7), 944-980.
- Cho, A., & Lim, Y. (2009). The differences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tatus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family structur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6*(1), 137-154.
- Cho, B.-H., & Lim, K.-H.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729-746.
- Cho, K., & Joo, H. (2003).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ntal health, behaviors between the divorced family adolescents and parents family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2*(4), 543-551.
- Chung, H. S. (1993). Post-divorce adjustment: The experience of the school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4*(1), 59-75.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 95-120.
- Demuth, S.,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58-81.
- Fomby, P., & Cherlin, A. J. (2007). Family instability and child well-be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2*(2), 181-204.
- Garg, R., Melanson, S., & Levin, E. (2007). Educational aspiration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rom single-parent and two biological parent families: A comparison of influenti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8), 1010-1023.
- Gil, A. G., Vega, W. A., & Biafora, F. (1998). Temporal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isk factors on drug use initiation in a multiethnic sample of adolescent boy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3), 373-393.
- Gray, R. S., Chamrathirong, A., Pattaravanich, U., & Prasartkul, P. (2013). Happiness among adolescent students in Thailand: Family and non-family fac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2), 703-719.
- Guion, K., Mrug, S., & Windle, M. (2009). Predictive value of informant discrepancies in reports of parenting: Relations to early adolescents'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 17-30.
- Hatos, A., & Baltatescu, S. (2013). Family structure and school results: Multivariate analysis of answers of teenage students in a Romanian city. *Child Indicators Research, 6*(2), 281-295.
- Hemovich, V., Lac, A., & Crano, W. D. (2011). Understanding early-onset drug and alcohol outcomes among youth: The role of family structure, social factors, and interpersonal perceptions of use. *Psychology Health & Medicine, 16*(3), 249-267.
- Hoffmann, J. P. (2006). Family structure, community context,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6), 867-880.
- Huh, M. Y.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wang, E. S. (2007). Comparison of conflicts in single mother families and single father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 Single Parent Family Institute, 2*(1), 1-20.
- Hwang, S.-K., Seo, H.-A., & Kim, J.-J. (2010). A research on actual condition for daily lives after school of

- single parent's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3), 91-104.
- Hyun, E.-M.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stress and family resilience on the family adjustment of single-mother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4), 59-84.
- Jablonska, B., & Lindberg, L. (2007). Risk behaviours, victimisation and mental distress among adolescents in different family structures. *Social Psychiatry & Psychiatric Epidemiology*, 42(8), 656-663.
- Jeung, M. S. (2011).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to 'school-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and both parents families. *Forum for Youth Culture*, 26, 191-228.
- Ju, S.-H., & Lee, K.-E. (2005).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of children in post-divorce stage: Related to patterns of child rearing. *Family and Culture*, 17(3), 123-153.
- Kang, B. J., Kim, E. H., & Nho, C. R. (2012).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self-esteem and resiliency among father-headed families and mother-headed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3, 29-50.
- Kerr, M., Stattin, H., & Ozdemir, M. (2012).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adjustment: Revisiting directions of effects and the role of parental knowledge. *Developmental Psychology*, 48(6), 1540-1553.
- Kim, H., & Lee, S. (2011).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Comparison of single parent family and two-parent famil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3), 215-241.
- Kim, J., & Yang, S. (2013). The influence of parental gender on adolescent depression in single-parent families: Mediating effect of parent-child functional communica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1), 1-22.
- Kim, M.-K., Lee, H.-Y., & Choi, T.-J. (2012).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2), 75-90.
- Kim, O. N. (2004). An analysi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fluencing factors of single mother families with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1(3), 43-62.
- Kim, S.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Y., Yim, J. Y., Kim, S. O., Park, S. H., Yu, S. Y., Choi, J. Y., & Lee, G. Y. (2006). *Adolescent Development Index Study I*. Seoul: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 Kim, S.-W.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W., & Jeon, J. (2010). Research trends concerning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n Korean journals 1991-2010.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4), 653-671.
- Kim, Y. (2014). The study on the level of psychosocial adjustment and related factors affecting to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living with custodial grandparents. *Forum for Youth Culture*, 37, 8-30.
- Kwan, Y. K. (2008).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structure among adolescents in Hong Ko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1), 59-67.
- Langton, C. E., & Berger, L. M. (2011).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physical health, behavior, and emotional well-being. *Social Service Review*, 85(3), 323-357.
- Lee, K.-E., & Lee, J.-L. (2008). A study on development of self-esteem in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A comparison with two-parent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5(2), 1-16.
- Lee, K.-H., & You, Y.-D. (2006). Family func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according to parents' marital status. *Family and Culture*, 18(2), 115-138.
- Lee, W., Chu, H., & Yoo, N. (2014). The effect of school transferring experience on adolescents' school maladjustment: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 anxiety. *Forum for Youth Culture*, 39, 92-113.
- Magnuson, K., & Berger, L. M. (2009). Family structure states and transition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well-being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3), 575-591.
- Mokruue, K., Chen, Y. Y., & Elias, M. (2012). The inter-

- action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child gender on behavior problems in urban ethnic minority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6(2), 130-136.
- Naevdal, F., & Thuen, F. (2004). Residence arrangements and wellbeing: A study of Norwegian adolescent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5(5), 363-371.
- Nam, H.-J., Yoon, H.-S., Lee, T.-Y., Shin, C.-Y., & Lee, D.-H. (2013). A understandi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adaption in single parent 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1), 129-168.
- Nam, Y.-O.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Studies on Korean Youth*, 21(3), 219-243.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3). *The user guide of the KCYPS panel data*.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Oh, S.-H. (2001).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system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mong male-headed, female-headed, and norm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2, 77-107.
- Patten, C. A., Gillin, J. C., Farkas, A. J., Gilpin, E. A., Berry, C. C., & Pierce, J. P. (1997). Depressive symptoms in California adolescents: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4), 271-278.
- Pong, S. L., & Ju, D. B. (2000). The effects of change in family structure and income on dropping out of middle and high school. *Journal of Family Issues*, 21(2), 147-169.
- Price, S. J., & McKenry, P. C. (1988). *Divorce*.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Kim, S.-H., & Kim, K.-Y. (1998).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4), 155-166.
- Sieh, D. S., Visser-Meily, J. M. A., & Meijer, A. 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family type, and adolescent functioning. *Plos One*, 8(11), 1-9.
- Son, B. (2012). Significant behavior problems among children with single mothers: Mediating effects of sibling relationship and internet gam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9), 215-229.
- Statistics Korea (2014). *Future population*. Daejeon: Statistics Korea.
- Sterrett, E. M., Jones, D. J., & Kincaid, C. (2009). Psychosocial adjustment of low-income african american youth from single mother homes: The role of the youth-coparent relationship.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8(3), 427-438.
- Sun, Y. M., & Li, Y. Z. (2011). Effects of family structure type and stability on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trajector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3), 541-556.
- Troxel, W. M., Lee, L., Hall, M., & Matthews, K. A. (2014). Single-parent family structure and sleep problems in black and white adolescents. *Sleep Medicine*, 15(2), 255-261.
- Vanassche, S., Sodermans, A. K., Matthijs, K., & Swicegood, G. (2014). The effects of family type,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al role models on delinquency and alcohol use among flemish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1), 128-143.
- Vazsonyi, A. Y., Ksinan, A., Mikuska, J., & Jiskrova, G. (2015). The Big Five and adolescent adjustment: And empirical test across six cul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234-244.
- Yeom, Y., Choo, S., & Lim, S. (2007). The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ssim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5(2), 67-79.
- Yun, W.-S. (2011). The effect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on parenting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2(1), 137-172.
- Zeiders, K. H., Roosa, M. W., & Tein, J. Y. (2011). Family structure and family processes in Mexican-American families. *Family Process*, 50(1), 77-91.

□ Received: March 2, 2015

□ Revised: July 25, 2015

□ Accepted: August 13, 2015